

# 안방극장 지각변동...시즌제 드라마 전성시대



시즌제 드라마가 빠른 속도로 안방극장에 안착하고 있다. 사진은 시즌제로 기획 중인 SBS '낭만닥터 김사부'와 MBC '검법남녀', tvN '비밀의 숲'의 한 장면. (왼쪽사진부터) 사진제공 | SBS·MBC·tvN

시즌1 히트 팬 후속편도 성공 보장 안정적 제작환경 연기자들도 선호 미드에 익숙한 시청자들 거부감 ↓

시즌제 드라마가 방송가의 새로운 '대박 아이템'으로 각광 받고 있다. 연기자들의 일정을 맞추기 쉽지 않고 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해 '애물단지'로 취급받던 과거와 확연히 달랐다. 빠른 속도로 드라마 시장에 안착하고 있는 덕분에 앞으로 다양한 형태의 시즌제 드

라마가 안방극장을 찾을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최근 SBS '낭만닥터 김사부' 등을 비롯한 각종 시즌제 드라마가 연달아 제작 소식을 알렸다. 이에 앞서 MBC '검법남녀', OCN '보이스' '구해줘' 등이 시리즈를 연이어 성공시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시선이 나온다. 한 제작사 관계자는 25일 "과거 시즌제 드라마 제작에 난색을 표하던 방송사와 연기자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를 환영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드라마 편성에 어려움을 겪

는 지상파 방송사들은 시즌제 드라마를 더욱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시즌1이 제대로 성공하면 안정적으로 인기를 견인할 수 있어 '경제적'이라는 점에서. 연기자들의 인식도 달라졌다. 과거에는 정기적인 촬영에 대한 부담감, 이미지의 고착화 등을 이유로 고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먼저 일정을 조정해 출연을 자처하는 연기자도 나타나고 있다. '검법남녀' 시리즈를 연출한 노도철 PD는 "전 시즌에서 합을 맞춘 스태프가 안정적인 제작환경을 만들어 연기자들도 상당히 만족해 한다"

고 밝혔다. 넷플릭스 등 각종 OTT(동영상 재생 사이트)의 활성화도 시즌제 드라마의 안착에 힘을 보태고 있다. 노 PD는 "OTT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해외 유명 드라마 대부분이 시즌제여서 시청자도 이에 익숙해진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자연스럽게 드라마 작가들 사이에서도 "시즌제를 통해 큰 세계관을 담을 만하다"는 분위기가 공유되고 있다. 이에 "장기적인 시선으로 탄탄하게 설계된 시즌제 드라마가 나올 것"이란 기대감도 키운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명품 드라마 '비밀의 숲' 시즌2 제작 박차

일정 조율 등 사전 준비과정 돌입 주인공 조승우·배우나 출연 확정

2017년 화제의 드라마 '비밀의 숲'이 본격적인 시즌2 제작 수순에 돌입했다. '비밀의 숲' 제작진은 27일부터 시즌

2 제작을 위한 사전 준비과정을 시작한다. 촬영 일정 및 장소 조율, 마무리 캐스팅, 의상·소품·세트 등 제작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관한 논의가 활발적이다.

시즌2는 시즌1의 마지막 회에서 검사 황시목(조승우)이 좌천돼 발령받은 경남 남해 통영지청에서 이야기를 펼친다. 검

사와 스폰서 사이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는 과정을 그린다.

이에 따라 이미 시즌1의 주연 조승우와 배우나 출연을 확정했다. 제작진은 이들과 함께 어우러질 연기자 캐스팅에 한창이다. 시즌1이 이준혁·유재명·신혜선·이규형 등 조연부터 단역까지 드라마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힘입어 인기를 모았던 만큼 단역 캐스팅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앞서 시즌2 대본 작업도 진행했다. 시즌1에 이어 대본을 쓰는 이수연 작가는 올해 5월 이미 1~4회 대본을 완성하며 16부작 이야기의 전체적인 구상을 마쳤다. 제작사인 씨그널엔터테인먼트와 시즌1 방영 중이던 2017년 7월 이미 시즌2 계약을 맺은 이 작가는 KBS 2TV '뽀빠이' '함부로 애틋하게' '스파이' 등을 연출한 박현석 PD와 손잡는다.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송혜교(왼쪽)와 송중기.

## 송송커플 vs 안구커플 이별의 방식 '극과 극'

송송커플, 조용히 이혼 절차 마무리 안구커플, 소송전 진흙탕 싸움 예고

과경에 대처하는 스타커플들의 대조적인 모습이 눈길을 붙잡고 있다. 최근 잇따라 이혼을 결심한 스타커플들이 결혼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과정에서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7월22일 이혼조정이 성립돼 관계를 정리한 송혜교와 송중기는 6월27일 이혼조정 신청 사실이 처음 공개된 직후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한 한달여 동안 굳게 입을 닫았다. 각자 일에 묵묵히 임하면서 세간의 의혹과 루머도 사그라졌다.

송중기는 현재 영화 '승리호' 촬영에 한창이다. 미리 찍어둔 tvN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의 방송도 22일 마무리한 그는 '승리호'를 마치고 곧장 또 다른 영화 '보고타'로 향한다. 어느 때보다 작품에 적극 나서 공백 없이 활동하겠다는 각오다.   
현재 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는 송혜교도

재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다. 최근 뉴욕의 패션 아트스쿨 단기코스에 등록했다. 송혜교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25일 "평소 공식 일정이 없을 땐 뉴욕을 오가며 지내왔다"며 "계획한 국내 일정도 조용히 소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최근 이혼 소송에 돌입한 안재현과 구혜선은 '진흙탕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2016년 결혼해 3년 만에 파경을 맞은 이들은 'SNS 여론전'을 넘어 법적 다툼을 본격 시작한다. 안재현이 9일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장을 접수한 데 이어 구혜선도 24일 "반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혼인 파탄의 원인은 안재현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해온 내용을 뒷받침할 사진 등 증거 자료도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이들이 이혼 소송에 돌입할 경우 부부의 내밀한 사생활이 낱알이 공개될 가능성이 크다. 위자료와 재산분할 갈등까지 불거져 또 다른 폭로전으로 이어질 우려도 나오지만 양측 모두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해리 기자 goff1024@donga.com



안재현(왼쪽)과 구혜선.

## '나쁜 녀석들' 흥행몰이 김상중 대표작 추가요

개봉 2주 만에 400만 관객 돌파

배우 김상중이 '그것이 알고 싶다'를 넘어 대표작을 추가했다.

4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나쁜 녀석들: 더 무비'다. 2014년 OCN이 방송한 동명



김상중

드라마에 주인공 오구탁 형사로 활약한 그는 영화 버전까지 이끌면서 오랜 만에 스크린에서 흥행을 맞고 있다.

김상중은 1~2년에 한 편씩 드라마에 출연했지만 영화와는 좀처럼 인연을 맺지 못했다. 9월11일 개봉한 '나쁜 녀석들'은 김상중이 '유감스러운 도시' 이후 11년 만에 주연한

상업영화다. '북촌방향' 등 저예산영화를 통해 간간히 스크린 활동을 이었지만 최근 몇 년간 그는 오히려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자 이미지로 고차했다.

"어떤 연기를 해도 '그알'의 김상중 같다는 평을 듣는다"고 말할 정도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그에게 '나쁜 녀석들'의 성공, 이를 통한 이미지 변신은 값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주연작으로 흥행을 맞보기는   
이해리 기자

2006년 '투사부일체'(500만여 명) 이후 13년 만이기도 하다. 영화에서 김상중은 마동석과 팀을 이뤄 악랄한 범죄자들을 소탕하는 리더로 활약한다. 그는 "오구탁 형사에게 대리만족을 느꼈고, 덕분에 가장 사랑하는 캐릭터가 됐다"고 말했다. 영화 흥행을 전제로 후속편 구상도 기획 중인 가운데 김상중은 "후속편엔 무조건 함께 한다"며 의욕을 드러냈다.   
이해리 기자

## 연예뉴스 HOT 4

### 원빈 화보서 "배우 언급 자제" 논란



원빈

연기자 원빈이 '배우 언급 논란'에 해명하고 나섰다. 최근 원빈이 모델로 활동 중인 한 골프브랜드 측은 겨울화보를 공개하며 "그에 대해 '배우'라는 언급을 지양해 달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2010년 영화 '아저씨' 이후 드라마와 영화 등 연기 활동을 하지 않은 원빈의 '은퇴설'이 나돌았다. 소속사 이든나인 측은 이에 25일 "홍보대행사의 실수다. 해당 요청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골프브랜드 측도 이날 "브랜드 모델의 모습에 더 중점을 두려고 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 '음주운전 무죄' 이창명, 방송 컴백



이창명

음주운전 논란으로 무대를 떠났던 방송인 이창명이 돌아온다. SBS플러스는 25일 "이창명이 새 예능프로그램 '좋은 친구들'의 MC를 맡는다"고 밝혔다. 이어 "9일과 10일 경북 문경에서 첫 촬영에 29일 방송한다"고 덧붙였다. '좋은 친구들'은 연예인들과 그 지인들이 로드 미션을 수행하는 내용이다. 이창명은 2016년 서울 여의도에서 신호기 지주를 들이받은 뒤 차량을 두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음주운전 논란이 일었지만 지난해 3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 정우성 '노근리 평화상' 인권상 선정



정우성

배우 정우성이 '노근리 평화상' 인권상을 받는다. 25일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정우성이 2014년 유엔난민기구 친선대사로 위촉된 이후 5년 동안 난민 문제의 공감대 확산에 이바지했다"고 시상 배경을 밝혔다. 노근리국제평화재단은 1950년 한국전쟁 당시 충북 영동군 노근리에서 미군에 의해 피란민이 학살된 사건을 기려 2008년 평화상을 제정했다. 시상식은 10월18일 영동군 노근리평화공원 교육관에서 열린다.

### 현아 유튜브 변신 "다른 모습 기대"



현아

가수 현아가 유튜브로 활동한다. 소속사 피네이션은 25일 "현아가 유튜브 공식 아티스트 채널인 '현아잉(HyunA-ing)'을 개설해 29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현아는 SNS를 통해 "현아TV 정말 시작하나요?"라는 제목으로 프롤로그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여기서 현아는 "앨범에서 보여주지 못하는 다른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다"고 채널 개설 이유를 설명했다.